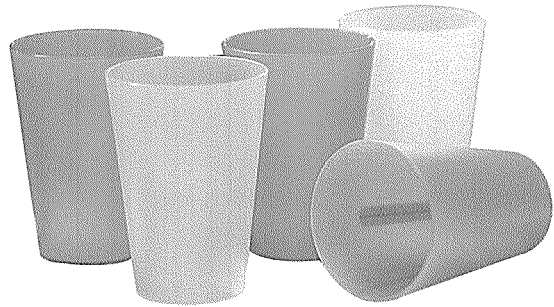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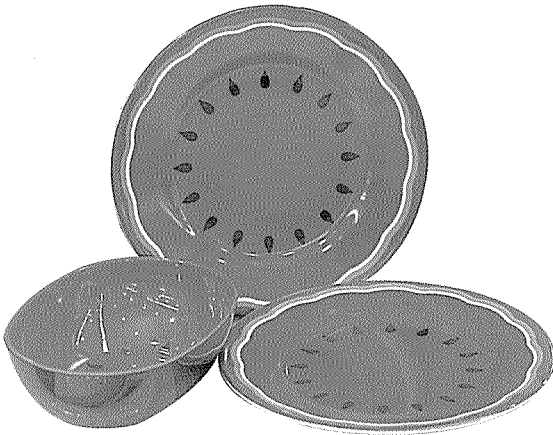


# 11만원으로 살수 있는 식기류

‘싼게 비지떡?’은 이제 옛말. 유행에 민감한 식기류를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. 조금만 비지떡을 떼다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... 천원짜리 10장을 가지고 값싸고 실용적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2001 아울렛을 찾아가 보았다.

■ 진행/ 박현희

↓ 원색의 수박무늬가 페인팅된 접시와 볼. 멜라민 소재로 가볍고 실용적이다. 8인치 접시는 개당 2,400원, 볼은 2,900원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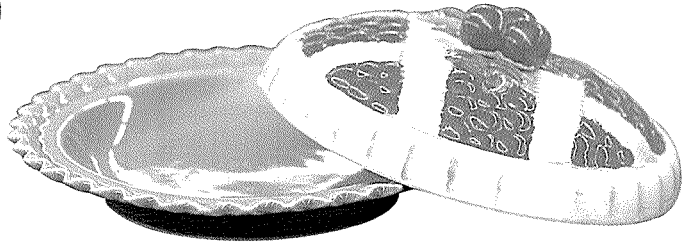


↑ P.P재질의 실용적인 컵 세트. 가격 또한 5개들이 한 세트에 1,900원으로 저렴하다.

↓ 럭비볼·야구 글러브 접시. 가벼운 폴리스틸렌 재질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럭비볼과 야구 글러브 모양이 시선을 끈다. 미국제품으로 개당 1,900원이다.



↑ 체리, 블루베리 파이 모양의 그릇. 재질은 자기이며 크기는 9인치이다. 판매가격은 9,900원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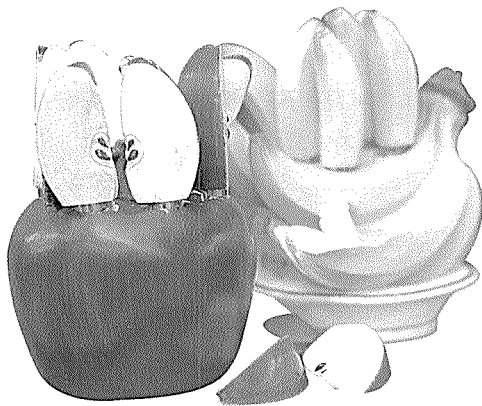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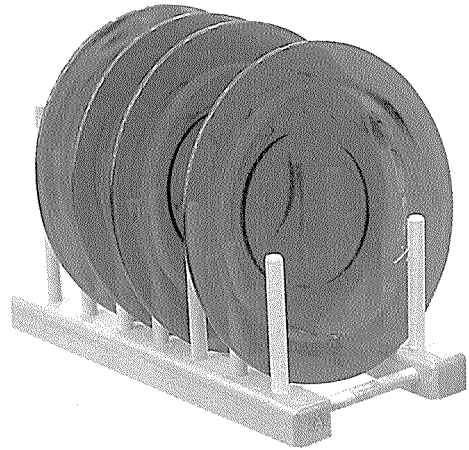
→ 해바라기 포플리. 노란 해바라기 꽃이 봉지가득 담긴 포플리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. 2,500원에 판매한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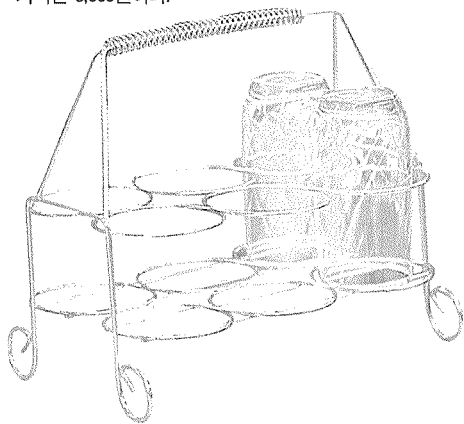
↑ 청포도와 레몬 두가지 종류의 부부잔. 개당 3,900원이다.

↓ 프랑스산 유리접시. 파란색 유리가 시원한 느낌을 더해준다. 색유리는 비싸리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가격은 개당 1,900원으로 저렴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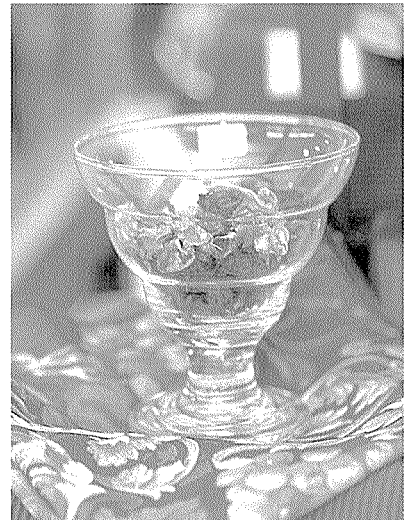


⇒ 잼·버터 나이프 세트. 바나나, 사과에 몽키바나나와 등분한 사과 나이프가 꽃혀있는 모습이 재미있다. 판매가격은 9,900원이다.

↓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컵걸이. 실용적이면서도 심플함이 눈에 띈다. 가격은 5,900원이다.



⇒ 영국산 소다 석회유리 재질의 아이스크림컵. 팔방수나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포플리를 담아 장식해도 좋다. 개당 2,900원이다.



↪ 오렌지색 띠가 포인트인 프랑스산 데이지컵. 내열강화유리로 가볍고 튼튼하다. 판매가격은 개당 900원이다.

↪ 컵의 밑부분에 각기 다른 4가지 색깔이 들어 있는 심플한 아이스크림컵. 소다 석회유리 재질의 영국산제품으로 4개들이 한 세트에 8,900원이다.

